

2017년 5월 26일, 구좌읍 하도리 하도리노인회관, 이현정 조사.

제보자1: 홍행춘(여, 1929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2: 이승정(여, 1930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제보자3: 고옥봉(여, 1935년생, 구좌읍 하도리)

- 줄거리: 그순새는 하늘과 땅 사이를 가득 메울 정도로 큰 귀신이다. 특히 그순새가 나타난 것을 모르고 그 사타구니 사이로 지나간 사람은 병을 얻어 앓다가 죽는다고 전한다.

그순새는 특히 봄비가 내릴 때 잘 나타나며, 만약 그순새를 만났을 때 '살랑'한 소리가 나게 되면 그순새가 쓰러져 버린 것이므로 그때 지나가게 되면 죽음을 면할 수 있다고 한다.

[조사자] 그순새엔 헨 거는 도체비랑 다른 거우꽈?

[제보자2] 그순새엔 헨 것은 왁왁헨 디 막 하늘광 그득 헤그네 땅광 하늘 맞부튼 거라.

[제보자3] 거난 그디 넘어갓당은 죽넨 허지 아네여? 그 강알로 넘어갓당은.

[제보자1] 거기 잇다가 살랑헨 소리가 나믄은 스러져분 거. 스러져불믄 가곡 그거 소리 안 난 때 가당은 죽어, 죽어.

[제보자2] 뵙 걸리주게, 뵙 걸려.

[제보자1] 아파.

[조사자] 뵙 걸려마씨? 아, 옛날에 그믄 기신새 만났 죽어난 사람 얘기도 들어났우과?

[제보자2] 그순새 만났 뵙 나그네 유울당 죽주게, 굿 허멍 무신 거 허멍.

[제보자1] 아이, 동동에 할망도 줄 때 신 구헤네, ○○이 할망, 어느 할망 죽었저. 그 기신 새 헤나네.

[제보자2] 그순새 잘 나.

[제보자1] 옛날 막 나났어.

[조사자] 그순새는 막 어디에 잘 납니까? 언제.

[제보자2] 봄 때. 비 축축허게 온 때.

[제보자1] 하늘광 그득헤영 왁왁왁왁 왁, 허민 다리 영 벌렁 사민 사람은 몰랑 그 알로

지나간 사람은 몸이 펜안 안 허곡. 그게 살랑헌 소리난. 소리가 나민 시러져 불
민 엇어진단다.

[제보자2] 어. 시러젧자 아무 것도 엇어도 그추룩했주게.

[제보자3] 눈에만.

[조사자] 살랑헌 소리가 나야 뉘마씨?

[제보자1] 쓰러지믄 살랑헌 소리가 난다게.

- 핵심어 : 그순새, 하늘, 땅, 강알, 병, 죽음, 살랑헌 소리, 봄, 비